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2-15절

강사 최무열 목사



한 사람의 역사는 그가 품은
‘산’의 크기로 결정된다.



괴물

뜻: 개 (Dog)

평생을 따라다닌
멀시와 조롱의 꼬리표.



세상의 시선

천대받는 짐승

이방인 취급

조롱의 대상

갈렘의 증명

주인을 향한 절대적 신뢰

생명을 내어놓는 헌신

가장 충성스러운 거룩한 종

가장 멸시받던 이름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충성의 상징이 되다.



아버지 여분네 (Jephunneh)

이름의 의미: “돌아선 자” (Turned back)

- 이방인의 삶에서 참 하나님을 발견.
- 과거의 모든 세계관을 끊어내는
영적 턱백(Turn-back).
- 거룩한 백성으로 귀화한 절대적 결단.

기생 라합

다말

룻

마태복음에 기록된 '거룩한 할머니들'.
이방인에서 이스라엘의 심장으로.

여분네와 갈렙

이스라엘 영토 정복의 선봉장이 된 거룩한 이방인.

하나님은 완벽한 혈통이 아니라, 완벽하게 '돌아선 자'를 기뻐하신다.



1인자와 2인자의 패러다임

무대:	여호수아 (스포츠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리더십)	갈렘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팔로워십)
욕망:	여호수아 (민족을 이끄는 책임)	갈렘 (1인자의 자리를 결코 탐내지 않는 자족)
평가:	여호수아 (세상이 기억하는 영웅)	갈렘 (하나님이 기록하신 끝까지 충성된 영웅)

만년 2인자의 거룩한 금지. 그는 한 번도 1인자를 질투하지 않았다.

골리앗의 조상, 아낙 자손.
압도적인 물리적 크기 앞에 무너진 이스라엘의 시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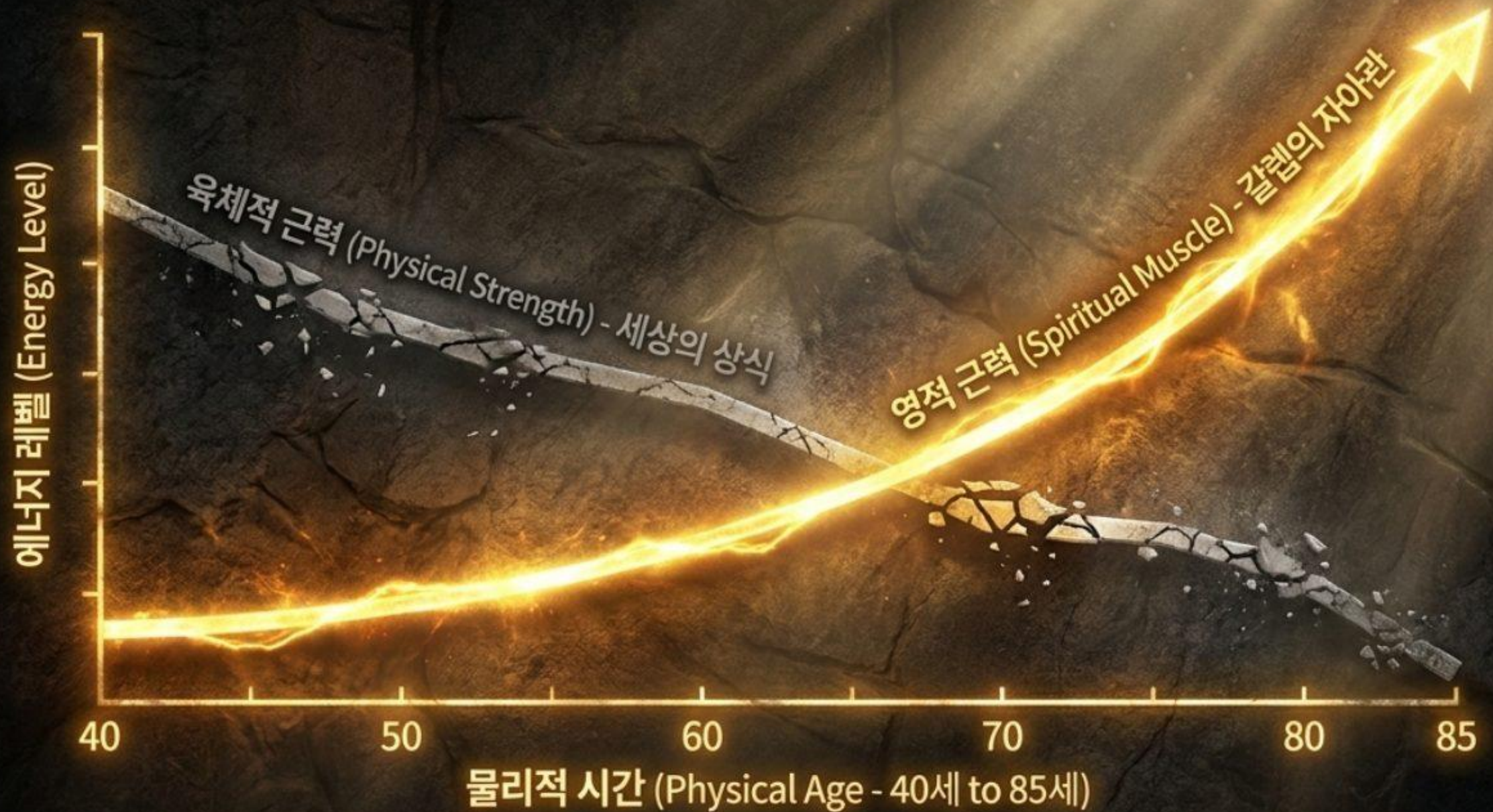




영적 시력 (Spiritual Vision)의 차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두려움을 데이터에서 삭제한 영적 담대함.

“내 나이 85세로되...”
45년의 기다림. 시간이 꺾지 못한 약속.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지금도 강건하여..."
육신의 쇠퇴를 압도하는 영적 전성기의 도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Give me this mountain)

평지 (The Plains)

- 안락함, 이미 정복된 땅, 타협과 쉽.
- 다른 지파들이 요구한 권리.

이미 정복된 땅

안락 땅과 쉽.

다른 지파들이
요구한 권리

85세과 노장이
스스로 지치한사명

헤브론 산지 (The Hebron Mountains)

- 고난과 피흘림, 아낙 자손의 본거지, 가장 험준한 요새.
- 85세 노장이 스스로 자처한 사명.

헤브론 산지

나를 넘어선 동기 (Beyond Self)

노욕(老慾)과 자기 과시가 아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가장
험한 길을 뚫어내는 거룩한 개척 정신.



A dramatic scene with a sunset sky, a glowing light beam, an Israeli flag, a spiked sword, and a broken shield.

헤브론의 붕괴, 약속의 성취.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충성과 믿음이 완성한 압도적 승리.



정보의 영적 의미

가장 험한 산지가 이스라엘 생명의 수원지(水源池)가 되다.
불가능을 뚫어낸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 전체를 살린다.

적용 1: '뒷방 늙은이'를 거부하라

나이가 인생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정적 에너지와 타협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하는 긍정적 개척자의 삶.

적용 2: 영원한 '개'로 남는 기쁨

세상의 1인자 자리를 밟고 일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기꺼이
2인자로 섬기는 거룩한 충성.



여분네의 결단

(세상에서 돌아서는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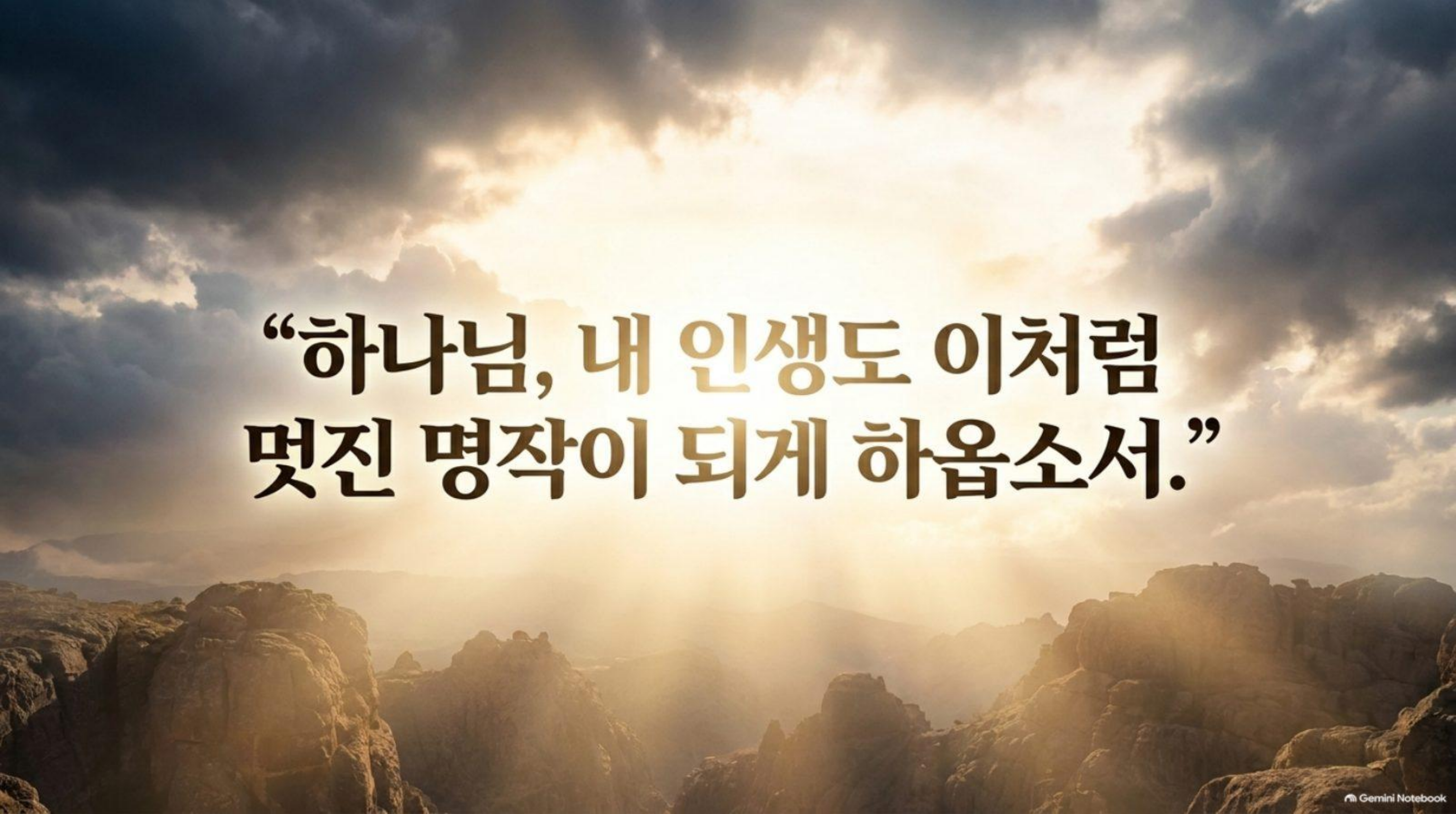
영원한 2인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충성)

**이 시대의 갈렙.
내가 써 내려갈 인생의 명작.**

85세의 진격

(나이와 한계를 부수는 개척 정신)



“하나님, 내 인생도 이처럼
멋진 명작이 되게 하옵소서.”